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UCI]I804:24011-200000256726

2012년 2월

석사학위논문

미취학 자녀를 둔 대학병원 여성 근로자의 양육스트레스 관련요인

조선대학교 보건대학원

보 건 학 과

양 지 은

미취학 자녀를 둔 대학병원 여성 근로자의 양육스트레스 관련요인

The Associated Factors of the Parenting Stress of Working Mothers with Preschool Children in Some University Hospitals

조선대학교 보건대학원

보 건 학 과

양 지 은

미취학 자녀를 둔 대학병원 여성 근로자의 양육스트레스 관련요인

지도교수 류 소 연

이 논문을 보건학 석사학위신청 논문으로 제출함

2011년 10월

조선대학교 보건대학원

보 건 학 과

양 지 은

양지은의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위원장 조선대학교 교수 박 종 (인)

위 원 조선대학교 교수 한 미 아 (인)

위 원 조선대학교 교수 류 소 연 (인)

2011년 12월

조선대학교 보건대학원

< 목 차 >

표 목차 ····· ii
그림목차 ····· iii
Abstract ····· iv

I. 서 론 ····· 1

II. 연구 방법 ····· 4
A. 연구개요 ····· 4
B. 연구대상 ····· 4
C. 자료수집방법 ····· 5
D. 자료분석방법 ····· 7

III. 연구 결과 ····· 8
A. 연구대상자의 특성 ····· 8
B. 연구대상자의 요인과 양육스트레스와의 관련성 ····· 11
C. 양육스트레스 관련요인 ····· 14

IV. 고 찰 ····· 17

V. 요약 및 결론 ····· 20

참고문헌 ····· 21
설 문 지 ····· 25
감사의 글 ····· 31

<표 목 차>

표 1. 어머니 요인 관련 특성분포 ····· 8
표 2. 자녀 요인 관련 특성분포 ····· 9
표 3. 맥락적 요인 관련 특성분포 ····· 10
표 4. 연구대상자의 양육스트레스 ····· 11
표 5. 어머니 요인, 자녀 요인과 양육스트레스와의 관련성 ····· 12
표 6. 맥락적 요인과 양육스트레스와의 관련성 ····· 13
표 7. 양육스트레스와 연속변수와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 ····· 14
표 8. 양육스트레스와의 관련요인 ····· 16

<그림 목차>

그림 1. 양육스트레스의 개념적 모델 ····· 4

Abstract

The Associated Factors of the Parenting Stress of Working Mothers with Preschool Children in Some University Hospitals

Yang, Ji-Eun.
Advisor : Prof. Ryu So Yeon, MD. Ph.D.
Department of Public Health Graduate School of Health Science, Chosun University

To identify factors which influence on the parenting stress of working mothers with preschool children in university hospitals, this study interviewed 155 working mothers with children aged below 6, who are working in a university hospital and a dental hospital in Gwangju, with a structured questionnaire from October 1 to 9, 2011.

The questionnaire was composed of questions on children factors (the number of children, developmental status, temperament and etc.), mother factors (age, religion, self-rated health, educational level, license types, self-confidence as a mother, and etc) and contextual factors (working type, family structures, household income, family support, marriage satisfaction, job satisfaction, spouse's job and educational level, etc). The relations between the factors and parenting stress were identified with uses of t-test, ANOVA, Pearson's correlations analysi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As a result of the simple analysis, the statistically significant children factors were developmental status and children's temperament. The significant mother factors were age, religion, self-rated health, license type and self-confidence as a mother. And the working type, job satisfaction,

and marriage satisfaction were the statistically significant contextual factors with the parenting stress. As a result of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e results showed that the parenting stress were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self-rated health of mother, job satisfaction and marriage satisfaction.

In conclusion, the parenting stress of working mother is related with contextual factors including job satisfaction and marriage satisfaction rather than mother and children characteristics. To relieve the parenting stress, the program and environmental set-up for helping the working mothers should be needed.

I. 서론

여성의 학력 수준 상승과 사회진출 기회의 증가는 여성의 경제활동을 활발하게 하였고, 더불어 자녀를 둔 여성의 경제활동도 증가하였다. 최근 맞벌이 가족의 증가가 지속되고, 경제 위기에서 남성 가구주의 갑작스러운 실직 등으로 여성 취업이 더 증가하면서 맞벌이 가족이 보편적인 가족형태로 자리잡아가고 있다(김선희, 2011).

여성의 연령별 경제활동 참가율은 25-29세가 69.0%로 가장 높고, 다음은 40대, 50대 초반 순으로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유사한 M자 패턴을 보이고 있다. 결혼 후 육아가 진행되는 30-34세는 51.9%로 크게 하락하였다가, 30대 후반부터는 56.3%로 노동시장에 진출하는 여성인구가 다시 증가하는 것을 볼 때(통계청, 2009), 여성의 취업이 결혼이나 출산, 어린자녀 양육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2000년 결과와 비교하였을 때도 30-49세 여성의 취업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어, 이러한 취업모의 증가와 더불어 사회적으로도 아동양육에 대한 어려움과 개선의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다(이진희, 2011).

많은 취업모들은 가정에서의 역할을 그대로 맡으면서 부가적으로 사회적 역할을 추가하게 되어 과중한 역할 부담에 따른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되며, 특히 자녀 양육에 따른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는다(김기현, 1997; 유일영 등 1998). 양육스트레스는 가족생활의 부모역할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로 가족체계가 직면하는 발달과정 속에서 어느 정도 예상되는 스트레스를 말한다(고성혜, 1994). 이러한 양육스트레스는 무엇보다 남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것이 사실이나 실제적으로 가사분담 실태에 관한 자료를 보면, 부인 주도 89.5%, 남편 주도 1.5%, 공평하게 분담 9.0% 등으로 부인의 가사분담이 대부분이며, 2006년 부인 주도 89.7%와 비교하여도 여전히 우리사회는 여성의 가사담당 역할이 절대적이고 남편은 주체가 아닌 단순히 도와주는 객체인 것이 현실이다(통계청, 2008). 이는 경제활동 참여에 있어서는 성에 대해서는 개방적이지만, 가사 활동에 대해서는 여전히 남성을 경제 부양자로만 생각하는 고정관념으로 인해 사회적 구조를 변화시키는데 어려움을 가지기 때문으로 보여진다(방희정과 조혜자, 2004).

부모가 양육스트레스를 느끼게 되면 심리적인 부담감은 물론, 자녀에 대한 태도, 자녀와의 상호작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부모로서의 적응에도 부정적인 결과를 나타내게 된다. 더불어 양육에 대한 부모의 관심을 약화시켜 부당한 양육행동을 하게 된다(Abidin, 1990). 자녀 양육과정에서 취학 전 자녀가 있는 경우는 많은 지원과 환경의 조화가 필요하다. 특히 이 시기의 아동은 신체적 성장을 비롯한 인지 사회적, 지적 발달과 건강에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또한 이 시기의 자녀는 최적의 발달이 이루어지기 위해 개체의 생리적 준비정도와 환경적 지원이 조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 시기에는 주 양육자의 역할 즉 어머니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고, 더불어 어머니는 가장 큰 양육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시기가 되기도 한다(Loka 등, 1994; 이자형 1998). 이러한 양육스트레스를 적절히 해소할 수 있는 방법 등 취업모의 자녀 양육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가정과 직장의 역할 과중이 심화되어 이직을 초래할 수도 있다(유일영 등, 1998).

종합병원은 타 업종에 비해 직원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고 대부분의 직종이 고학력과 다년간의 임상경험을 요구하는 직종이 많아 결혼과 육아로 인해 퇴직할 경우 사회적 개인적 손실이 크게 발생된다. 병원은 환자의 진료와 치료라는 병원의 특성에 맞춰 다양한 근무형태가 존재하며 행정부서를 제외하면 모든 부서가 24시간 근무한다. 근무시간대의 다양화와 유연성 때문에 병원의 여성근로자는 일반적으로 제공되는 시간대의 보육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므로, 자녀를 둔 여성근로자의 경우 업무 자체의 스트레스와 양육스트레스 등이 겹쳐 2중고를 겪고 있는 실정이다(김승미, 2005). 이러한 스트레스에 의한 취업모의 부담은 궁극적으로 자녀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다(이상희, 2011). 양육스트레스의 발생요인으로는 아동의 까다로운 기질이나 특성, 부모 자신과 배우자의 특성, 결혼생활에 대한 만족도를 비롯한 주위환경에서 야기되는 맥락적 요인(contextual factors)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Abidin, 1992; Dumas와 LaFreniere, 1993; 김기현, 1997; 채선미 등, 1999; 최은지 2011).

지금까지 양육스트레스에 대한 연구는 미취업모와 취업모, 전문직 및 사무직 취업모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고(채선미 등, 1999; 박윤미, 2001), 병원 근무여성을 대상으로 양육스트레스에 대한 연구는 주로 간호사에 집중되어 왔다(김미영, 1995; 황춘희, 1996; 조혜경, 2001). 병원조직의 특성상 간호

직 외에도 다양한 직종에 여성근로자가 일을 하고 있고, 이들의 근무특성도 일부 행정부서를 제외하면 간호사와 비슷하다는 측면에서 이들이 호소하는 양육스트레스에 대한 파악과 관련 요인을 알아보고자 하는 시도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종합병원 내 근무하는 다양한 직종의 여성근로자를 대상으로 양육스트레스를 연구한 경우는 아직까지는 매우 드물다.

이에 본 연구는 종합병원에서 근무하는 다양한 직종의 미취학자녀를 둔 여성근로자를 대상으로 양육스트레스를 파악하고, 자녀 요인, 어머니 요인, 맥락적 요인 등의 요인과 양육스트레스와의 관련성을 파악하고자 수행하였다.

II. 연구방법

A. 연구개요

본 연구는 미취학 자녀를 둔 여성근로자를 대상으로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단면조사 연구로 연구의 개념적 모델은 그림 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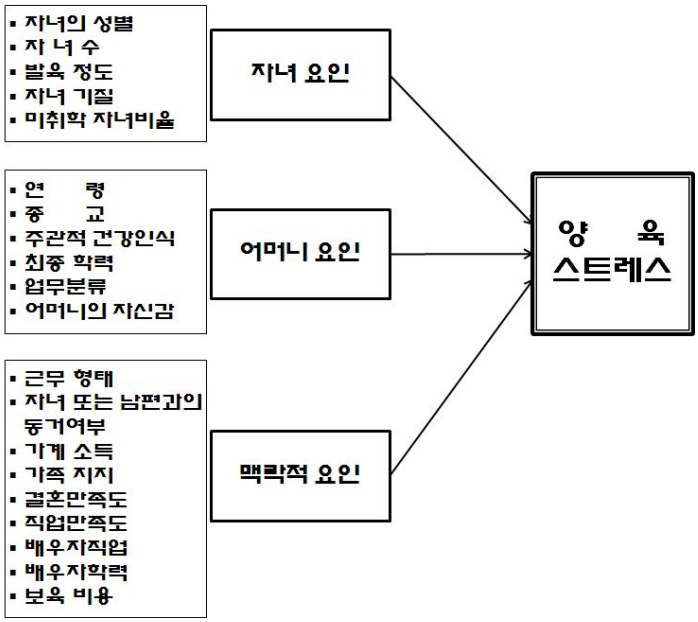

그림 1. 양육스트레스의 개념적 모델
(Abidin(1995)연구를 기본으로 연구자가 구성)

B.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광주광역시에 위치한 대학교의 부속병원과 치과병원에 재직 중인 여성 근로자 총 800명 중 결혼하여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여성 16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 수집은 2011년 10월 1일부터 10월 9일까지 조사기간동안 연구자가 직접 해당병원을 방문하여 연구취지 및 목적을 설명

한 후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응답이 불성실한 5명의 자료를 제외한 155명(96.9%)을 최종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C. 자료수집방법

설문지는 연구개요에서 제시한 어머니 요인, 자녀 요인과 맥락적 요인으로 구분하여 구성하였다.

1. 어머니 요인

어머니 요인은 여성근로자의 연령, 종교, 주관적 건강인식, 최종학력, 업무분류, 어머니의 자신감으로 구성하였다. 어머니의 자신감은 어머니 됨에 대한 인식과 자녀를 돌보는데 필요한 지식, 기술 등을 갖추고 있는 어머니로서의 역할 능력을 말하며(박성옥, 1993), 본 연구에서는 Gibaud-Wallston(1977)이 개발한 Parenting Sense of Competence Scale (PSCS)을 김기현(1997)이 수정 보완한 도구를 이용하였다. 이 도구는 4개 문항으로 이루어졌다. 각 문항의 내용에 따라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로 구분되는 5점 Likert 척도를 이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어머니의 역할 능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값은 0.678이었다.

2. 자녀 요인

자녀 요인은 여성근로자 자녀의 성별, 자녀의 수, 발육정도, 자녀의 기질, 미취학 자녀비율로 구성하였다. 자녀의 기질은 Bates 등(1979)이 제작한 자녀기질 설문(ICQ) 중 이상희(2011)가 재구성한 도구를 이용하였다. 이 도구는 8개 문항으로 이루어졌으며, 각 문항의 내용에 따라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로 구분되는 5점 Likert 척도를 이용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자녀의 '까다로운 기질'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값은 0.811이었다.

3. 맥락적 요인

맥락적 요인은 근무형태, 자녀 또는 남편과의 동거여부, 가계소득, 가족지지,

결혼만족도, 직업만족도, 배우자 직업, 배우자 학력, 보육비용으로 구성하였다.

직업만족도는 이제영(1988)의 직장생활 만족도와 Kalleberg(1977)의 직업만족도 문항을 수정 · 보완한 황현주(1994)의 직업만족도 척도를 이용하였다. 이 도구는 17개 문항으로 이루어졌으며, 각 문항의 내용에 따라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로 구분되는 5점 Likert 척도를 이용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직업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값은 0.881이었다.

결혼만족도는 결혼에 대한 선호도로써 부부의 결혼만족 정도를 측정하고자 하였다. 척도의 개발은 Roach 등(1981)이 고안한 Marital Satisfaction Scale (MSS)로 이인수와 유영주(1986)가 번안한 것을 이용하였다. 이 도구는 30개 문항으로 이루어졌으며, 각 문항의 내용에 따라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로 구분되는 5점 Likert 척도를 이용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결혼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값은 0.920이었다.

가족지지는 자녀양육에 대한 지지를 측정하는 것으로 King 등(1995)이 개발한 Family Support Inventory for Workers Scale 문항을 이용하였다. 이 도구는 8개 문항으로 이루어졌으며, 각 문항의 내용에 따라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로 구분되는 5점 Likert 척도를 이용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자녀양육에 대한 가족지지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값은 0.786이었다.

4. 양육스트레스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한 도구는 Abidin(1983)이 개발한 부모양육스트레스 목록표(PSI-Parenting Stress Index)를 이지민(1996)이 번안하여 사용한 척도를 이용하였다.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총 36개 문항으로 측정되었으며, 유능성, 애착, 역할 제한성, 우울, 배우자와의 관계, 사회적 고립 건강의 7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의 내용에 따라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로 구분되는 5점 Likert 척도를 이용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양육스트레스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값은 0.860이었다.

D. 자료분석방법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win version 17.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조사된 변수는 변수의 척도에 따라 평균과 표준편차, 빈도와 백분율로 제시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양육스트레스의 비교는 t-검정과 분산분석을 실시하였고, 양육스트레스와 연속변수로 측정된 변수와의 관련성은 피어슨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최종적으로 양육스트레스와 관련이 있는 변수를 파악하기 위하여 단변량분석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였던 변수들을 독립변수로, 양육스트레스를 종속변수로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먼저 자녀 요인과 양육스트레스와의 관련성을 확인하였고, 다음 단계에서 자녀 요인에 어머니 요인를 추가하여 관련변수를 확인하였으며, 마지막으로 맥락적 요인를 추가하여 각 변수와 양육스트레스와의 관련성을 확인하였으며, 분석의 단계별로 독립변수에 의한 설명력을 제시하였다.

III. 연구 결과

A. 연구대상자의 특성

1. 어머니 요인 관련 특성

대상자의 연령분포는 29세 이하가 24.0%, 30-39세가 70.1%, 40세 이상이 5.8%이었고, 최종학력에서는 전문대 졸업은 31.2%, 대학교 졸업이 53.2%, 대학원(석사이상) 졸업은 15.6%이었다. 종교가 있는 경우가 53.2%, 없는 경우는 46.8%이었고, 주관적 건강인식은 건강이 나쁨이 9.1%, 보통은 52.6%, 건강함이 38.3%이었다. 업무분류에서는 간호사가 58.4%로 많았고, 의료기사가 18.2%, 행정 12.3%이었다. 어머니의 자신감은 평균과 표준편차가 12.55±2.21점이었다(표 1).

표 1. 어머니 요인 관련 특성분포

변 수	구 분	N(%)
연령(세)	≤ 29	37(24.0)
	30-39	108(70.1)
	≥ 40	9(5.8)
최종학력	전문대졸	48(31.2)
	대학교 졸업	82(53.2)
	대학원(석사 이상)	24(15.6)
종교	있다	82(53.2)
	없다	72(46.8)
주관적 건강인식	건강이 나쁨	14(9.1)
	보통	81(52.6)
	건강함	59(38.3)
업무분류	간호사	90(58.4)
	의료기사	28(18.2)
	행정	19(12.3)
	기타	17(11.0)
어머니의 자신감(점)	평균±표준편차	12.55± 2.21

2. 자녀 요인 관련특성

총 자녀수가 1명이 42.2%, 2명이 48.1%, 3명이 9.7%이었고, 미취학 자녀수는 1명이 66.9%, 2명이 29.9%, 3명이 3.2%이었으며, 자녀의 발육정도가 나쁘다고 응답한 경우가 50.6%, 좋다고 한 경우는 49.4%이었다. 자녀기질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23.34±4.59점, 미취학 자녀비율은 86.1±23.1점이었다(표 2).

표 2. 자녀 요인 관련 특성분포

변 수	구 분	N(%)
총 자녀수(명)	1	65(42.2)
	2	74(48.1)
	3	15(9.7)
미취학 자녀수(명)	1	103(66.9)
	2	46(29.9)
	3	5(3.2)
자녀의 발육정도	나쁨	78(50.6)
	좋음	76(49.4)
자녀기질(점)	평균±표준편차	23.34± 4.59
미취학 자녀비율(%)	평균±표준편차	86.10±23.10

3. 맥락적 요인 관련 특성

자녀와의 동거형태에서는 '같이 살고 있다'가 81.2%, 보육시설을 이용한다가 78.6%, 집에서 돌봐주는 사람이 없는 경우가 13%, 가족인 경우가 81.2%, 기타인 경우 5.8%이었다. 근무형태는 낮근무가 35.1%, 3부 교대가 61.7%로 가장 많았다. 남편과의 동거하는 경우가 89.0%, 주말부부 등으로 동거하고 있지 않는 경우가 11%이었다. 남편의 연령은 29세 이하가 6.5%, 30-39세가 77.3%, 40세 이상은 16.2%이었다. 남편의 배우자학력에서는 전문대 졸업이 8.4%, 대학교 졸업이 67.5%, 대학원(석사이상) 졸업은 24%이었고, 월평균 수입에서는 300만원 미만이 12.3%, 300-400만원 미만이 27.9%, 400-500만원 미만이 35.1%, 500만원 이상은 24.7%이었으며, 월 양육비에서는 50만원 미만이 17.5%, 50-100만

원 미만이 48.1%, 100-150만원 미만이 22.1%, 150만원 이상은 12.3%이었다. 직업만족도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51.27±7.74점, 가족지지는 24.58±3.44점, 결혼만족도는 103.87±13.24점이었다(표 3).

표 3. 맥락적 요인 관련 특성분포

변 수	구 분	N(%)
자녀와의 동거형태	같이 살고 있다	125(81.2)
	같이 살고 있지 않다	29(18.8)
보육시설이용유무	유	121(78.6)
	무	33(21.4)
근무형태	낮근무	54(35.1)
	3부교대	95(61.7)
	기타	5(3.2)
집에서 돌봐주는 사람	없다	20(13.0)
	가족	125(81.2)
	기타	9(5.8)
남편과의 동거여부	동거	137(89.0)
	동거하지 않음	17(11.0)
남편의 연령	≤ 29	10(6.5)
	30-39	119(77.3)
	≥ 40	25(16.2)
배우자학력	전문대졸	13(8.4)
	대학교 졸업	104(67.5)
	대학원(석사 이상)	37(24.0)
월평균 수입(만원)	300 미만	19(12.3)
	300-400 미만	43(27.9)
	400-500 미만	54(35.1)
	500 이상	38(24.7)
월 양육비(만원)	50 미만	27(17.5)
	50-100 미만	74(48.1)
	100-150 미만	34(22.1)
	150 이상	19(12.3)
직업만족도(점)	평균±평균편차	51.27± 7.74
가족지지(점)	평균±평균편차	24.58± 3.44
결혼만족도(점)	평균±평균편차	103.87±13.24

4. 연구대상자의 양육스트레스 수준

미취학 아동을 둔 병원 여성근로자의 양육스트레스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107.69±13.57점이었다(표 4).

표 4. 연구대상자의 양육스트레스

변 수	평균±표준편차	최소값,최대값
양육스트레스(점)	107.69±13.57	(67, 140)

B. 연구대상자의 요인과 양육스트레스와의 관련성

1. 어머니 요인, 자녀 요인과 양육스트레스와의 관련성

어머니 요인 및 자녀 요인에 따른 양육스트레스 수준을 비교한 결과 종교 여부, 주관적 건강인식, 업무분류와 양육스트레스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이 있었다. 종교의 경우 있는 경우 양육스트레스는 105.28±13.31점, 없는 경우는 110.39±13.44점으로 있는 경우에 유의하게 낮았고, 주관적 건강인식은 나쁘다고 인지하는 경우 102.39±13.16점, 보통인 경우 111.24±11.65점, 건강한 경우는 103.98±14.89점으로 주관적 건강인식상태에 따라 양육스트레스 수준은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업무분류의 경우 간호사인 경우 107.51±13.25점, 의료기사 111.18±12.35 점, 행정직 100.47±16.98점, 기타 직종인 경우는 110.97±10.32점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어머니의 연령, 배우자학력, 자녀의 발육정도는 양육스트레스 수준과 유의한 관련이 없었다(표 5).

표 5. 어머니 요인, 자녀 요인과 양육스트레스와의 관련성

변 수	구분	평균±표준편차	P-값
연령(세)	≤ 29	109.03±14.10	0.493
	30-39	107.63±12.86	
	≥ 40	103.00±19.55	
배우자학력	전문대 졸업	105.85±11.50	0.342
	대학교 졸업	107.82±14.53	
	대학원(석사 이상)	110.83±13.86	
종교	있다	105.28±13.31	0.020
	없다	110.39±13.44	
주관적 건강인식	건강이 나쁨	102.39±13.16	0.002
	보통	111.24±11.65	
	건강함	103.98±14.89	
업무분류	간호사	107.51±13.25	0.040
	의료기사	111.18±12.35	
	행정직	100.47±16.98	
	기타	110.97±10.32	
자녀의 발육정도	나쁨	109.71±11.21	0.060
	좋음	105.59±15.45	

2. 맥락적 요인과 양육스트레스와의 관련성

맥락적 요인에 따른 양육스트레스 수준을 비교한 결과 자녀와의 동거, 보육시설이용유무, 집에서 아이를 돌봐주는 사람 유무, 남편과의 동거, 배우자 학력과 월평균 수입은 양육스트레스 수준과 유의한 관련이 없었다. 근무형태의 경우 낮근무는 104.61±13.99점, 3교대 110.04±12.57점, 기타 근무형태인 경우는 96.60±17.79점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표 6).

표 6. 맥락적 요인과 양육스트레스와의 관련성

변 수	구 분	평균±표준편차	P-값
자녀와의 동거	동거	107.61±13.90	0.891
	동거 하지 않음	108.00±12.26	
보육시설이용유무	유	106.78±14.07	0.117
	무	110.97±11.13	
근무형태	낮근무	104.61±13.99	0.011
	3부교대	110.04±12.57	
	기타	96.60±17.79	
집에서 돌봐주는 사람	없음	103.47±14.96	0.354
	가족	108.29±13.41	
	기타	108.22±12.55	
남편과의 동거	동거	108.22±13.10	0.169
	동거 하지 않음	103.41±16.69	
배우자학력	전문대 졸업	101.75±10.19	0.285
	대학교 졸업	108.31±13.78	
	대학원(석사 이상)	107.87±13.76	
월평균 수입(만원)	300 미만	107.94±16.51	0.501
	300-400 미만	106.88±11.73	
	400-500 미만	109.76±11.71	
	500 이상	105.53±16.34	

3. 양육스트레스와 여러 연속변수와의 상관관계

자녀기질은 양육스트레스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직업만족도, 어머니의 자신감, 가족지지, 결혼만족도, 보육비, 어머니의 연령, 남편의 연령은 양육스트레스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p<0.01$)(표 7).

표 7. 양육스트레스와 연속변수와의 상관관계 분석결과

	V1	V2	V3	V4	V5	V6	V7	V8	V9
V2	-0.355**								
V3	-0.209**	0.227**							
V4	-0.113	0.266**	0.471**						
V5	0.381**	-0.330**	-0.312**	-0.071					
V6	-0.604**	0.282**	0.388**	0.429**	-0.369**				
V7	-0.076	0.031	0.191*	0.033	-0.092	0.098			
V8	-0.187*	0.160	-0.120	-0.081	-0.134	0.121	0.007		
V9	-0.204*	0.108	-0.162*	-0.124	-0.089	0.079	-0.014	0.849**	
V10	0.030	-0.189*	-0.105	0.112	0.112	0.000	-0.115	0.347**	-0.284**

- V1 ; 양육스트레스, V2 ; 직업만족도, V3 ; 어머니의 자신감, V4 ; 가족지지, V5 ; 자녀기질 V6 ; 결혼만족도, V7 ; 보육비, V8 ; 어머니의 연령, V9 ; 남편연령, V10 ; 미취학 자녀비율
- ** $P<0.01$, * $P<0.05$

C. 양육스트레스 관련요인

양육스트레스와 관련이 있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단계별로 변수를 추가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자녀 요인만을 고려한 경우 양육스트레스는 자녀기질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이 있었으며, 자녀기질이 까다로울수록 양육스트레스가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자녀 요인을 포함한 경우 이들 변수에 의한 양육스트레스의 설명력은 14.4%이었다.

자녀 요인에 어머니 요인을 추가하여 양육스트레스와 관련이 있는 변수를 알아본 결과, 자녀기질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이 있었고, 어머니의 연령, 종교여부, 주관적 건강인식, 업무분류 등은 유의한 관련이 없었다. 이들 변수

에 의한 양육스트레스의 설명력은 18.9%이었다.

맥락적 요인까지 포함한 경우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주관적 건강인식을 나쁘다고 인지하는 경우에 비해 보통이라고 느끼는 경우, 직업만족도와 결혼만족도였다. 즉 주관적 건강인식이 나쁘다고 인지하는 경우에 비해 보통인 경우 양육스트레스 수준이 높았고, 직업과 결혼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양육스트레스는 감소하였다. 분석에 포함된 독립변수에 의한 양육스트레스의 설명력은 42.8%이었다(표 8).

표 8. 양육스트레스와의 관련요인

변 수		자녀 요인			자녀+어머니 요인			자녀+어머니+맥락적 요인		
		회귀계수	표준오차	P-값	회귀계수	표준오차	P-값	회귀계수	표준오차	P-값
발육상태	좋음/나쁨	-2.731	2.050	0.185	-1.332	2.146	0.536	-0.705	1.872	0.707
자녀기질(점)		1.103	0.228	0.000	0.757	0.248	0.003	0.166	0.232	0.474
연령(세)					-0.331	0.268	0.218	-0.105	0.232	0.652
종교	있음/없음				3.461	2.093	0.100	1.878	1.856	0.313
주관적 건강인식	보통/불건강				5.362	3.887	0.170	7.744	3.379	0.023
	건강/불건강				1.461	3.887	0.708	5.143	3.342	0.126
업무분류	의료기사/간호사				2.429	2.795	0.386	3.430	2.785	0.220
	행정직/간호사				-3.214	3.432	0.351	-1.067	3.719	0.775
	기타/간호사				0.357	3.408	0.917	0.588	3.678	0.873
자신감(점)					-0.796	0.508	0.119	0.269	0.476	0.573
근무형태	3교대근무/낮근무							1.997	2.655	0.453
	기타/낮근무							-5.072	5.229	0.334
직업만족도(점)								-0.285	0.127	0.027
결혼만족도(점)								-0.529	0.079	0.000
R^2(%)			14.4			18.9			42.8	

IV. 고찰

자녀양육에 따른 스트레스는 부모 모두가 느끼는 문제이지만, 특히 어머니의 스트레스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사회가 변화함에도 어머니가 자녀의 성장과 발달에 있어서는 예로부터 중요한 양육자로 인식되어져 왔고, 자녀 양육의 주된 책임자는 어머니라는 문화적 규범과 토대 속에서 자녀 양육에 대한 스트레스는 어느 때 보다 많이 받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나라 기혼여성의 경우 경제활동 참가율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들이 아버지들보다 자녀양육을 하는 시간이 많아 어머니들이 아버지보다 양육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이라는 예측을 가능케 하기 때문이다(박해미, 1994).

미취학 자녀를 둔 여성근로자가 지각하는 양육스트레스 정도는 5점 만점에 평균 3.1점으로 약간 높았다. 기혼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 결과와 비교하면 김수현(2004)의 3.1점, 강수정(2011)의 3.12점과 비슷한 수준으로 볼 수 있으며, 일반 취업모를 대상으로 윤미향(2005)의 2.97점, 김춘자(2008)의 2.84점, 박봉주(2006)의 2.80점보다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수정(2011)의 연구에서 간호사가 일반 취업모보다 양육스트레스가 높았던 것은 업무요인과 전문직이라는 것, 출 퇴근 시간이 다르고 불규칙한 근무시간이 부정적 영향을 주기 때문으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대학병원 여성근로자는 생명과 직결된 업무를 하기 때문에 긴장이 더 심하며, 여기에 교대근무로 인한 수면장애나 피로로 인해 양육스트레스 정도가 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와 비슷하고 일반 취업모보다는 높게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미취학 자녀를 둔 여성근로자의 자녀 요인에 따라 양육스트레스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본 결과 자녀 요인과 양육스트레스와의 관련성에서는 자녀+어머니 요인에서 자녀기질에서 유의성을 보였으나, 자녀+어머니+맥락적 요인에서는 관련성이 소실되었다. 즉, 맥락적 요인이 고려되기 전까지는 자녀의 기질이 까다롭다고 판단할수록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아동의 기질 중 활동수준이 높을수록, 융통성이 낮을수록, 쾌활성이 낮을수록, 규칙성이 낮을수록, 공격적일수록, 어머니는 양육스트레스를 높게 인지한다고 하였으며, 이때 어머니가 아동의 행동을 자주 제한하고, 아동이 거부하는 행동을 자주하게 되면 어머니와 자녀는 갈등관계 수준을 높이게 되어 어머니의 양육스

트레스를 많이 경험한다고 보고하였다(Buss와 Plomin, 1986; 고성혜, 1994; 정순자, 2007).

한세영(1996), 조용신(1999), 남혜순(2003) 등의 연구결과에서도 자녀기질의 적응성과 규칙성이 낮고, 활동성이 높은 집단에 양육스트레스를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취학전 아동의 자녀기질 만을 확인한 정도였으나, 자녀기질을 영아기, 유아기, 학령기로 나누어 자녀기질에 따른 스트레스의 차이를 반복적으로 연구를 통해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자녀수와 관련된 스트레스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어 자녀가 많을수록 가사노동과 경제적 부담의 증가로 스트레스도 증가되는 것으로 보고한 연구결과와는 차이가 있었으나(김리진, 2000; 양미선, 2000), 권경희(1985)의 자녀수와 주부의 심리적 스트레스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보고한 연구는 유사하였다.

어머니 요인과 양육스트레스와의 관련성을 알아본 결과, 어머니의 자신감은 양육스트레스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었으나, 다변량 분석에서는 통계적 유의성이 소실되었다. 어머니 자신감은 어머니 스스로 자신을 자녀양육의 가장 중요한 존재로 인식하며, 자녀의 요구를 채워주는 일에 성취감을 느끼게 되기 때문에 양육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다고 하였으나(김기현, 2000),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관련성을 파악할 수 없었다.

맥락적 요인에 따라 양육스트레스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는 변인은 직업만족도와 결혼만족도였다. 본 연구결과 파악한 직업만족도와 양육스트레스와의 관련성은 선행연구에서도 제시된 바 있다. 직업만족도가 낮을수록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높았다(문현준, 2004; 김기원 등, 2010). 또한 취업모의 직업만족도가 높을수록 부모역할 만족도가 높았으며, 취업으로 인한 역할갈등을 상대적으로 적게 경험하였다(양연숙, 1997; 김민정, 2006). 즉 취업모는 자신의 직업에 만족함에 따라 심리적으로 안정되고, 경제적인 보상과 더불어 자아실현의 욕구가 충족되면서 삶의 만족감이 높아져 자녀를 보다 더 긍정적으로 양육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결혼만족도가 낮을수록 양육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이 높아졌고(김지연, 2004; 박삼수, 2004), 결혼 및 가족 생활만족도가 낮은 집단이 높은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양육스트레스를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정애, 2001). 양육행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부부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

하고 부부간의 부조화는 부적절한 양육과 관련이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남편이 가사 일을 분담하고 아내의 직장생활에 대해 관심을 갖고 이해하며 협조하는 등의 지속적인 지지는 취업모의 역할 갈등을 감소시키고, 결혼만족도를 높이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박삼수, 2004). 또한 남편이 가사노동과 자녀양육, 가족행사 등에서의 역할분담이나 부인의 역할을 심리적으로 인정하면 부인의 이중역할 갈등과 스트레스를 낮추어 준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첫째, 한정된 대학병원과 치과병원에 근무하는 병원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이기에 전체적인 병원근로자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따른다. 향후 다양한 규모와 근무형태를 보이는 병원근로자의 양육스트레스에 대한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본 연구는 단면적 연구방법으로 수행된 것으로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에 대한 원인적 연관성을 설명하는 데는 제한적이다.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상호관련성을 파악하는 것으로 본 연구의 해석을 제한하고, 원인적 연관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전향적 연구의 시도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양육스트레스와 관련된 요인을 자녀요인, 어머니 요인, 맥락적 요인으로 분류하여 파악하고자 하였고, 다양한 업무를 담당하는 병원 근로자의 양육스트레스를 파악하였다는 점에 의의를 둘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대학병원에 근무하는 여성근로자의 양육스트레스는 자녀와 어머니 자신의 요인보다는 결혼생활과 직업만족도와 같은 맥락적 요인과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부부관계 향상과 더불어 배우자의 적극적인 양육참여, 남편자신의 노력이 필요하고, 취업모의 가정과 직장에서의 이중적인 역할의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해 직업 환경의 개선은 물론 취업모 자신의 직업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요구되며, 직장차원에서의 지지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V. 요약 및 결론

대학병원에 근무하는 미취학 자녀를 둔 여성근로자의 자녀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대학교의 부속병원과 치과병원에 재직 중인 여성근로자 중, 결혼하여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여성 155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2011년 10월 1일부터 10월 9일까지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조사하였다.

설문지는 자녀의 요인으로 자녀의 성별, 자녀수, 발육정도, 자녀기질, 미취학 자녀비율 등을, 어머니의 요인으로 연령, 종교, 주관적 건강인식, 최종학력, 업무분류, 어머니의 자신감 등이, 맥락적 요인으로 근무형태, 자녀 또는 남편과의 동거여부, 가계소득, 가족지지, 결혼만족도, 직업만족도, 배우자 직업, 배우자 학력, 보육비용 등으로 구성하여 조사하였다. 양육스트레스와의 관련성을 t-검정, 분산분석, 피어슨의 상관분석과 다중선형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파악하였다.

단순분석 결과, 양육스트레스와 관련이 있었던 요인은 자녀 요인 중에서 자녀기질, 어머니 요인 중에서 연령, 종교, 주관적 건강인식, 업무분류, 어머니의 자신감, 맥락적 요인 중에서 근무형태, 가족지지, 결혼만족도, 직업만족도, 보육비용이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있었다. 양육스트레스와 관련이 있는 요인을 알아 보기위하여 단계별로 변수를 추가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에서 자녀 요인만을 고려할 경우, 자녀의 기질이 까다로울수록, 양육스트레스가 증가하였다. 자녀 요인에 어머니 요인을 추가하여 양육스트레스 와 관련이 있는 변수를 알아본 결과, 자녀의 기질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이 있었고, 맥락적 요인까지 포함하여 양육스트레스와 관련이 있는 변수를 알아본 결과에서는 주관적 건강인식을 나쁘다고 인지하는 경우에 비해 보통이라고 느끼는 경우, 직업만족도와 결혼만족도 등 이었다. 즉 주관적 건강인식이 나쁘다고 인지하는 경우에 비해 보통인 경우 양육스트레스 수준이 높았고, 직업과 결혼만족도가 높을수록 양육스트레스가 낮았다.

결론적으로, 배우자의 양육참여와 결혼생활의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서로의 관계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직장환경의 개선을 위한 긍정적인 인식과 직장차원에서의 지지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문헌

강수정. 간호사의 양육스트레스, 양육 태도와 이직의도와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을지대학교 임상간호대학원. 2011.

고성혜. 어머니가 지각한 양육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연구학회지, 1994; 18:21-37.

권경희 한국 도시주부의 심리적 디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1985.

김기현. 어머니의 역량·부모역할과 양육스트레스. 우석대학교논문집, 1997; 9:267-284.

김기현, 강희경. 양육스트레스 척도의 개발. 대한가정학회지, 1997;36(9): 141-150.

김기현. 맞벌이 부부의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학적 관련변인 탐색. 박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대학원. 2000.

김기원, 도현심, 김상원, 이선희. 어머니의 취업여부, 취업관련특성, 배우자의 지지 및 양육스트레스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2010;31(5):101-113.

김리진. 직장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에 관한 생태학적 연구- 만 6세 이하자녀를 둔 전문지, 사무직 및 생산직 여성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동덕대학교 대학원. 2000.

김미영. 간호사 이직대책에 관한 연구. 대한간호학회지, 1995;34(4):54-69.

김민정. 맞벌이 가정의 아동복지감과 맞벌이 어머니의 부모역할 만족도와의 관계. 아동학회지, 2006;27(2):15-37.

김선희. 기혼취업여성의 자녀 양육스트레스와 관련변인에 대한 연구- 자녀양육시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2011.

김수현. 영유아 자녀를 가진 종합병원 근무간호사의 양육스트레스정도와 관련요인 연구. 석사학위논문, 인하대학교 대학원. 2004.

김승미. 직장 보육시설 활성화방안- 종합병원의 사례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2005.

김정애. 자녀성장단계별 맞벌이 부부의 자녀양육스트레스 비교 연구. 석사학위논문, 목원대학교 산업정보대학원. 2001.

김지연. 한국 보육정책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상명대학교 정치경영대학원. 2004.

김춘자. 맞벌이 가정 어머니의 생태학적 변인이 자녀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총신대학교 대학원. 2008.

남혜순. 어머니가 지각하는 유아의 기질에 따른 양육스트레스의 차이. 아동교육, 2003:12(2), 121-135.

문현준. 취업모와 비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 대한가정학회지, 2004;42(11):109- 122.

박봉주. 영아기 자녀를 둔 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조선대학교 대학원. 2006.

박삼수. 맞벌이 부부의 자녀 양육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청주대학교 사회복지행정대학원. 2004.

박성옥. 3세 이하의 자녀를 둔 어머니의 격리불안. 박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대학원. 1993.

박윤미. 취업주부의 자녀양육스트레스.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2001.

박해미. 자녀양육행동과 관련된 부모의 스트레스 분석.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1994.

방희정, 조혜자. 성 고정관념 활성화가 남녀의 자아해석에 미치는 영향. 한국 심리학회지:사회문제, 2004;10(1):83-106.

양미선.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산후 우울증과 양육스트레스와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대학원. 2000.

양연숙. 일하는 어머니의 취업특성에 따른 부모역할 만족. 대한가정학회지, 1997;35(3):139-150.

유일영, 이경자, 채선미. 탁아방법에 따른 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 및 직업만족도 비교 연구. 한국모자보건학회지, 1998;2(2):159-169.

윤미향. 취업모의 취학전 자녀 양육스트레스와 사회적지지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순천향대학교 대학원. 2005.

이상희. 여성근로자의 양육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상지대학교 사회복지・정책대학원. 2011.

이인수, 유영주. 결혼만족도 척도의 타당화 연구- Roach, Frazier, Bowden의 Marital Satisfaction Scale.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986;4(1):1-14.

이자형. 초산모를 위한 육아교육이 어머니의 신생아양육행동과 어머니역할에 대한 자신감에 미치는 효과. 여성건강간호학회지, 1998;4(3):322-331.

이지민. 어머니가 지각한 아동의 행동문제가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경북대학교 대학원. 1996.

이진희. 취업모의 직업만족도, 아버지의 양육 참여도가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경원대학교 대학원. 2011.

이제영. 직장생활과 가정생활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갈등, 만족관계를 중심

으로-.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1988.

정순자. 유아의 기질과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충북대학교 대학원. 2007.

조용신. 어머니가 지각한 유아의 기질과 양육스트레스. 석사학위논문, 충북대학교 대학원. 1999.

조혜경. 병원취업모의 보육서비스에 대한 인식과 욕구에 관한 연구. 석사 학위논문,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2001.

채선미, 강희선, 이한주, 신현숙. 배우자지지가 미취학아동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한국모자보건학회지, 1999;3(2):187- 195.

최은지. 취업모의 직업만족도, 사회적지지, 양육스트레스 및 양육행동 간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2011.

통계청. 사회조사보고서, 가사분담실태. 2008

통계청. 사회조사보고서, 기혼여성의 취업 장애요인. 2009.

한세영, 아동과 어머니의 기질적 부조화에 따른 어머니의 일상적 양육스트레스.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1996.

황춘희. 취업간호사의 육아 및 탁아요구와 관련된 제도 개선방안. 석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행정대학원. 1996.

황현주. 맞벌이 부부의 가정생활과 직장생활간의 역할 전이.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1994.

Abidin RR. Parenting Stress Index(PSI): Manual Pediatric Psychology Press. 1983.

Abidin RR. Introduction to the special issue : The stresses of parenting. Journal of Clinicla Psychology, 1990;19(4):298-301.

Abidin RR. The determinants of parenting behavior.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1992;21:407-412.

Abidin, RR. Parenting stress index. Vol. 3rd. Odessa, FL : Psychology Resources; 1995.

Bates J, Freeland C, Lounsbury M. Measurement of infant difficulties. Child Development, 1979;50:794-803.

Buss AH, Plomin R. Temperament: Early developing personality traits. Hillsdale: Lawrence Earlbaum Associates. 1986.

Dumas JE, LaFreniere PJ. Mother-child relationships as source of support or stress : A comparison of competent, average, aggressive, and anxious dyads. Child Development, 1993;64:1732-1754.

Gibaud-Wallston JA. Self-esteem and situational stress : Factors

related to sense of competence in new parents(Doctoral dissertation, George Peabody College for Teachers. 1977). Dissertation Abstracts International, 1977;39:379B.

Kalleberg AL. Work Values and Job Rewards : A Theory of Job Satisfaction.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1977;42:124-143.

Loka P, Nossar V, Bauman AE. A comparative study of the growth of South-East Asian children in south-west Sydney born in Australia and overseas. Journal of Pediatrics and Child Health, 1994;30(5):436-438.

King LA, Mattimore LK, King DW, Adams GA. Family Support Inventory for Workers: A new measure of perceived social support from family members . Journal of Organizational Behavior, 1995;16(3):235 - 258.

Roach AG, Frazier LP, Bowden SR. The marital satisfaction scale : Development of a measure for intervention research.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1981;43:537-546.

< 설 문 지 >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선대학교 보건대학원 보건학을 전공하는 학생입니다.
본 설문지는 대학병원에 근무하는 미취학 자녀를 둔 여성근로자의 양육스트레스를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수집된 설문지는 여성근로자의 양육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하고자 하오니 평소에 느끼고 경험하신대로 부담 없이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설문지는 익명으로 처리될 것이며 수집된 자료의 내용은 연구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바쁘신 중에 귀한 시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2011년 10월

조선대학교 보건대학원 보건학과
연 구 자 : 양 지 은

Ⅰ. 다음의 문항은 귀하와 가족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에 관한 것입니다. 해당란에 기입하여 주시거나'✔'표를 해주십시오.

1. 귀하의 나이는 어떻게 되십니까? 만(_____)세
2. 귀하의 최종학력은?
   ① 고등학교 졸업 이하 ② 전문대 졸업 또는 대학교 중퇴
   ③ 대학교 졸업 ④ 대학원(석사이상)
3. 귀하는 종교가 있습니까?
   ① 기독교 ② 천주교 ③ 불교 ④ 종교 없음 ⑤ 기타(_____)
4. 귀하의 건강상태는 어떻습니까?
   ① 건강이 아주 나쁜 편이다. ② 별로 건강하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대체로 건강한 편이다. ⑤ 아주 건강하다.
5. 귀하가 가지고 있는 면허의 종류는?
   ① 간호사 ② 임상병리사 ③ 방사선사 ④ 물리치료사
   ⑤ 의무기록사 ⑥ 간호조무사 ⑦ 기타 (_____)
6. 귀하의 근무형태에'✔'표를 해주십시오.
   ① 낮 근무 ② 3부 교대(낮번, 초번, 밤번) ③기타(_____)
7. 귀하의 자녀는 총 몇 명입니까? 총 ( )명
8. 귀하의 미취학 아동의 자녀는 총 몇 명입니까? 총 ( )명
9. 자녀의 성별은 어떻게 되십니까? 순서대로 체크해 주십시오.
   (첫째 : 남/여, 둘째 : 남/여, 셋째 : 남/여, 넷째 : 남/여)
10. 미취학 자녀의 발육정도는 또래 아이들에 비해서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나쁨 ② 나쁨 ③ 보통 ④ 좋음 ⑤매우 좋음

11. 귀하는 현재 미취학 자녀와 함께 살고 있습니까?
① 집에서 같이 살고 있다 ② 다른 곳에서 살며, 주말 등에 집으로 데리고 온다
③ 다른 곳에서 살며 주말 등에 가서 만나고 온다 ④ 기타
12. 귀하 자녀는 보육시설(놀이방, 어린이집, 유치원 등)을 이용합니까?
① 예 ② 아니오
13. 귀하의 자녀들을 집에서 돌봐주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① 없다 ② 친정 또는 시어머니 ③ 형제, 자매 ④ 도우미 ⑤ 기타(_____)
14. 귀하는 현재 남편과 함께 사십니까?
① 같이 살고 있다 ② 직장 때문에 따로 산다(주말부부) ③ 별거, 이혼, 사별
④ 기타(_____)
15. 남편의 연령은 어떻게 되십니까? 만(_____)세
16. 남편의 최종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 고등학교 졸업 이하 ② 전문대 졸업 또는 대학교 중퇴
③ 대학교 졸업 ④ 대학원(석사이상)
17. 남편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① 공무원 ② 회사원 ③ 전문직(의사, 교사, 연구원, 언론인, 간호사 등)
④ 자영업 ⑤ 서비스및판매업 ⑥ 생산직,단순노무직 ⑦ 무직 ⑧ 기타 (_____)

18. 남편의 수입을 포함하여 귀 댁의 월 평균 수입은 얼마입니까?
① 200만원 미만 ② 200-300만원 미만 ③ 300-400만원 미만
④ 400-500만원 미만 ⑤ 500만원 이상
19. 미취학 자녀의 양육을 위해 타인이나 보육시설에 지출하는 비용은 월평균 얼마입니까? ( )만원/월

Ⅱ. 귀하의 자녀 기질에 관한 질문입니다. 각 질문 내용이 자녀의 행동과 일치하는 곳에 '✔'표를 해주십시오.

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아이가 울 때 달래는 것이 쉽다.					
2. 아이에게 음식 먹이는 것이 쉽다.					
3. 아이가 자주 조르고 야단법석을 떤다.					
4. 아이가 자주 운다.					
5. 아이의 기분이 자주 변한다.					
6. 아이에게 기본적으로 보살피는 것 외에도 많은 주의를 요해야 한다.					
7. 아이를 데리고 다니기 쉽다.					
8. 아이를 다루기 쉽다.					

* 1,2,7,8번항목 역코딩

Ⅲ. 귀하가 생각하는 어머니로서의 자신감에 관한 질문 입니다. 각 질문의 내용이 귀하께서 느끼시는 바와 가장 일치하는 곳에'✔'표를 해주십시오.

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아이를 돌보는 데 있어 유능하다.					
2. 나는 아이에게 좋은 어머니일지 자신이 없다.					
3. 나는 아이가 무엇을 요구하는지 누구보다도 잘 안다.					
4. 나는 좋은 어머니가 되는데 필요한 지식과 방법을 잘 안다.					

* 2번항목 역코딩

Ⅳ. 귀하의 가족지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각 질문의 내용이 귀하께서 느끼시는 바와 가장 일치하는 곳에'✔'표를 해주십시오.

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남편은 자녀들의 문제에 대해 나와 의논하는 편이다.					
2. 남편은 내가 어머니 역할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도와준다.					
3. 남편은 자녀들과 많은 시간을 함께 해준다.					
4. 남편이 자녀의 학업·교육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여주어서 기쁘게 생각한다.					
5. 시부모(시댁 쪽 형제)가 자녀양육에 대해 관심을 보이고 적극 도와주고 있다.					
6. 친정부모(친정 쪽 형제)가 자녀양육에 대해 관심을 보이고 적극 도와주고 있다.					
7. 직장동료(이웃)들이 자녀양육과 관련된 자료를 주고받거나 조언을 해준다.					
8. 방과 후 교실이나 놀이방 학원 등을 이용하는 것이 자녀양육에 도움이 된다.					

*12, 15번항목 역코딩

Ⅴ. 귀하의 직업만족를 알아보기 위한 질문입니다. 각 질문의 내용이 귀하께서 느끼시는 바와 가장 일치하는 곳에'✔'표를 해주십시오.

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직장에서 업무가 흥미롭다.					
2. 직장 업무를 통해 나의 능력을 발전시키고 사용할 수 있다.					
3. 직장에서의 업무를 수행할 때 나의 의사를 충분히 발휘할 수 있다.					
4. 직장의 물리적 환경이 쾌적하다.					
5. 보수가 충분하다.					
6. 직장이 안정되어 있다.					
7. 나의 직장은 사회에서 인정을 받고 있다.					
8. 직장 동료들이 우호적이고 협조적이다.					

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9. 직장 상사가 존경스럽고 호감이 간다.					
10. 승진 기회가 좋다.					
11.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도움(설비, 정보, 권한)이 적절하게 주어진다.					
12. 상부에서 내려오는 명령 혹은 지시가 불합리하다.					
13. 나는 나의 직장에 만족한다.					
14. 나는 나의 직장을 친구에게 추천하고 싶다.					
15. 나는 조만간 새로운 직장을 알아볼 계획이다.					
16. 나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같은 직장을 또 택할 것이다.					
17. 현재 직장은 내가 애초에 바라던 직장의 모습에 가깝다.					

Ⅵ. 귀하의 결혼만족도에 대한 질문입니다. 각 질문의 내용이 귀하께서 느끼시는 바와 가장 일치하는 곳에 '✔'표를 해주십시오.

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결혼생활에 있어서 남편이 나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다.					
2. 남편은 되도록 나를 편하게 해주려 한다.					
3. 나를 결혼생활에 대해서 근심, 걱정이 없다.					
4. 만약 내가 다시 결혼한다면, 지금의 남편과 같은 사람과는 결혼하지 않을 것이다.					
5. 나는 남편을 항상 신뢰할 수 있다.					
6. 내가 결혼을 하지 않았더라면 나의 인생은 매우 공허했을 것이다.					
7. 현재 결혼생활은 나를 너무 구속한다.					
8. 나는 나의 결혼생활이 따분하게 느껴진다.					
9. 나는 남편과의 결혼생활이 어떤 상태인지를 알고 있다.					
10. 결혼 생활은 나의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					
11. 나는 결혼생활에서 일어나는 일들 때문에 화가 나고 짜증스럽다.					
12. 나는 결혼생활을 잘 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다고 생각한다.					
13. 지금의 결혼생활이 영원히 지속되기를 바란다.					
14. 시간이 갈수록 나의 결혼생황은 더 만족스러워 질 것이다.					

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5. 나는 결혼생활을 잘 해보려고 노력하는데 지쳤다.					
16. 나는 결혼생활이 생각했던 것만큼 즐겁다고 생각한다.					
17. 나는 결혼생활은 다른 어떤 일보다도 나에게 만족감을 더해 준다.					
18. 결혼생활이 해가 갈수록 어려워진다.					
19. 남편이 나를 매우 신경질 나게 한다.					
20. 남편은 내 의사를 나타낼 충분한 기회를 주는 편이다.					
21. 지금까지의 나의 결혼생활은 성공적이었다.					
22. 남편은 나를 자신과 동등하게 대해준다.					
23. 결혼생활 이외의 가치있고 흥미로운 인생을 추구해야 한다.					
24. 남편은 내가 최선을 다하도록 용기를 북돋아준다.					
25. 결혼생활을 통하여 내 성격은 많이 억눌려져 왔다.					
26. 내 결혼생활의 미래는 희망적이다.					
27. 나는 남편에게 진실로 관심을 기울인다.					
28. 나는 남편과 사이가 좋다.					
29. 나는 남편과 이혼하여 헤어질까봐 두렵다.					
30. 남편은 내 자유시간을 불공평하게 자주 빼앗는다.					

*3,4,7,8,10,11,13,15,18,19,23,25,29,30번 항목 역코딩

Ⅶ. 양육스트레스

다음의 각 문항은 자녀를 키우면서 부모로서 어떻게 느끼는지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녀를 염두에 두시고 각 문항마다 귀하의 생각과 가장 일치하는 곳에'✔'표를 해주십시오.

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아이를 돌볼 때 나는 유능한 부모라고 생각한다.					
2. 좋은 부모가 되는 것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어려운 일이다.					
3. 우리 아이에게 정말로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을지 확신이 없다.					
4. 나는 부모의 역할을 하는 것이 즐겁다.					
5. 나는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어떤 결정도 할 수가 없다.					
6. 우리 아이에게 무엇을 시키거나 저지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					
7. 처음 아이를 낳았을 때 나는 생각한 것보다 아이를 잘 다룰 수 없었고 도움이 필요했다.					
8. 부모가 자녀들과 가깝고 따뜻한 느낌을 갖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생각한다.					

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9. 우리 아이에게 더 친근하고 따뜻하게 대해야 하는 것이 어렵다.					
10. 내가 어렸을 때에는 아이들을 돌보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 이라고 생각했다.					
11. 우리 아이는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도 엄마인 나를 필요로 한다.					
12. 나는 자녀수가 너무 많다고 생각한다.					
13. 나의 시간은 대부분 아이들을 위해 소비된다.					
14. 대개 내 아이를 위해 나 자신은 포기한다.					
15. 나는 부모로서 아이에 대해 많은 책임감을 느낀다.					
16. 나는 종종 우리 아이의 요구가 나를 억압한다고 느낀다.					
17. 우리 아이가 생긴 이후로 새로운 특별한 일들을 많이 할 수 없었다.					
18. 내가 부모로서의 나를 생각할 때 나쁜 부모라는 생각이 든다.					
19. 우리 아이가 뭔가 잘못할 때마다 그 것이 나의 잘못이라고 느낀다.					
20. 나의 삶에서 많은 일들이 나를 괴롭혔었으며 그리 평탄하지 못했다.					
21. 아이에게 화를 내고 나면 죄책감이 들고 후회가 된다.					
22. 아이가 생긴 후 남편은 내가 기대한 만큼 아이에게 헌신하지 않았다.					
23. 아이가 생긴 후 남편과 함께 하는 시간이 적어졌다.					
24. 아이가 생긴 후 남편과 많은 트러블이 생겼다.					
25. 아이가 생긴 이후로 시댁식구나 친척들과 관계된 문제들이 많아졌다.					
26. 아이가 생긴 이후로 생활비가 훨씬 많이 들었다.					
27. 나는 친구가 없고 홀로라는 느낌이 든다.					
28. 나는 많은 사람들의 모임에서 잘 즐기지 못하는 편이다.					
29. 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흥미가 없다.					
30. 우리 아이를 돌보는데 문제가 생겼을 때 나에게 도움이나 충고를 해 줄 사람들이 많이 있다.					
31. 우리 아이가 생긴 후로 친구를 만나거나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것이 어려워졌다.					
32. 지난 6개월 동안 평소보다 더 아팠고 두통이 잦았다.					
33. 나는 신체적으로 건강한 편이다.					
34. 아이가 생긴 이후로 수면시간이 불규칙하다.					
35. 아이를 낳은 후 예전처럼 즐겁지가 않다.					
36. 아이가 무엇을 원하는지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감사의 글

엊그제 새내기로 입학하여 석사학위과정을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두해가 지나갔지만 많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바쁘게 뛰었던 나날 중에 작은 결실을 맺기 위해 저에게 많은 도움과 배려로 도와주신 분들의 고마움이 생각납니다.

부족하지만 본 논문이 있기까지 바쁘신 와중에서도 어느 것 하나 소홀하지 않으시고 많은 시간을 배려하여 지도해주신 류소연 교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심사에 참여하여 많은 도움을 주신 박 종 교수님, 한미아 교수님, 그 외 여러 교수님께도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그리고 오늘이 있기까지 항상 걱정과 함께 배려하여 주신 선후배 그리고 직장 동료들에게도 진심어린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끝으로, 힘들 때면 웃음과 용기를 주었던 나의 보석들 서현, 상욱, 수인이와 학업과 직장에 충실할 수 있도록 아이들을 잘 돌봐주신 시부모님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항상 따스함으로 감싸주며 사랑으로 헌신해 준 나의 남편, 정명진에게 고마움과 사랑의 마음을 전합니다.

2011 년 12 월

양 지 은 올림

저 작 물 이 용 허 락 서

학 과	보건학과	학 번	20108611	과 정	석사
성 명	한글: 양 지은 한문 : 梁 智恩 영문 : Yang Ji Eun				
주 소	광주광역시 남구 진월동 30 진아리채아파트 304동 402호				
연락처	E-MAIL : jung2b@hanmail.net				
논문제목	한글 : 미취학 자녀를 둔 대학병원 여성근로자의 양육스트레스 관련요인 영어 : The Associated Factors of the Parenting Stress of Working Mothers with Preschool Children in some University Hospital				

본인이 저작한 위의 저작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아래 조선대학교가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동의합니다.

- 다 음 -

1. 저작물의 DB구축 및 인터넷을 포함한 정보통신망에의 공개를 위한 저작물의 복제, 기억장치에의 저장, 전송 등을 허락함.
2. 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의 편집·형식상의 변경을 허락함. 다만, 저작물의 내용변경은 금지함.
3. 배포·전송된 저작물의 영리적 목적을 위한 복제, 저장, 전송 등은 금지함.
4. 저작물에 대한 이용기간은 5년으로 하고, 기간종료 3개월 이내에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저작물의 이용기간을 계속 연장함.
5.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또는 출판을 허락을 하였을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대학에 이를 통보함.
6. 조선대학교는 저작물의 이용허락 이후 해당 저작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타인에 의한 권리 침해에 대하여 일체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
7. 소속대학의 협정기관에 저작물의 제공 및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저작물의 전송·출력을 허락함.

동의여부 : 동의(O) 반대( )

2012년 2월 일

저작자: 양 지 은 (서명 또는 인)

조선대학교 총장 귀하